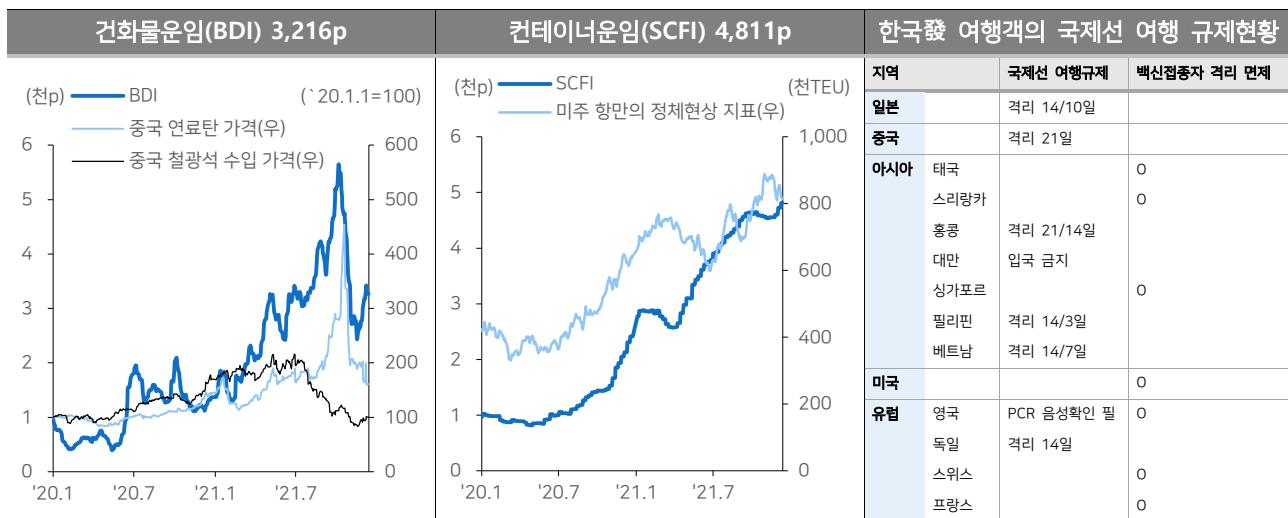




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



자료: Clarksons, 외교부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'Volatile' market: MR rates double as product tankers outstrip crude ship earnings

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최근 일주일 간 평균 MR탱커의 운임이 약 2배 가량 상승했다고 보도됨. Howe Robinson 집계에 따르면 3만 DWT급 Skikda-Lavera 노선 운임이 일일 6만달러를 기록하면서 일주일 전 8천달러 대비 폭등했다고 보도됨. 평균 MR탱커 운임은 일주일 사이 +112% 상승했다고 보도됨. (TradeWinds)

Owners squeeze last drops out of booming container ship market

컨테이너 운임 폭등에 따라 2021년 현재까지 419척, 약 140만TEU 규모의 컨테이너 선대가 거래됐으며 사상 최고 수준의 중고선가를 기록했다고 보도됨. 컨테이너선사들이 전체 거래량의 60%를 구매했으며 중고선가 가격이 연초대비 160% 상승하는 데 기여했다고 보도됨. (TradeWinds)

이스타항공 내년 2월 다시 날아오른다

이스타항공이 직원 체불임금 문제를 마무리 짓고 2022년 2월부터 운항을 다시 시작할 전망이라고 보도됨. 체불임금 등 공익채권 변제가 마무리됨에 따라 전임 대표 명의로 돼 있던 사업면허 변경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했다고 보도됨. 2022년 2월부터 비행기 3대로 김포 제주간 국내 노선부터 운항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보도됨. (에어진)

자가격리 또 연장하나… 숨죽이는 항공업계

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'오미크론' 확산으로 항공사들이 괌, 동남아 등 주요 국제선 노선에 대한 중단 및 축소에 나섰다고 보도됨. 오는 16일까지로 예정된 해외 입국자들의 자가격리 조치가 재연장될 경우 국제선 여객 수요 감소가 예상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보도됨. (에어진)